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day.or.kr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인력'



031-759-5588

제40호 | 발행일 : 2009. 10. 8.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를 꿈꾼다

지관근 시의원(상대원 1·2·3동)

INDEX

0 뮤지컬 '남한산성', 사상 최강 캐스팅 '출항'	6면
0 성남 · 광주 · 하남시 통합 '새국면'	7면
0 성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 꿈꾼다	8면
0 성남시청 청사 이전 '조읽기'	10면
0 경기도,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12면
0 전국 최초 '글로벌 IPTV 확산센터' 개소	13면



통합시!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e-평등성남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

- 성남 광주 하남지역 중심으로 -

성남 광주 하남 지역은

-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진 지역이다.
- 경제적 동질성과 생활 문화권이 같은 곳이다.
-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통합! 왜 필요한가?

-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 경쟁력 제고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상 등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교육자치권 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 가능.
- 투자예산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성남시



판교, 글로벌 R&D 메카로 뜬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박차'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기관 입주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오는 2012년까지 글로벌 R&D 센터와 공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첨단 산업 중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R&D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12년 4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실시한 입찰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

업들의 기업활동 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지원 용지내에 공공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12년 8월 완공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 융합 기술 등 첨단산업 R&D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판교 신도시의 R&D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해 경기도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만 현재 기반조성 공사는 부지조성 88%, 조경공사 80%, 전기공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12월 완공 예정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34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며, 지난 3월 준공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외에 이노벨리, 한국바이오협회, 삼성테크윈, 네스원퓨처, 유라코퍼레이션, SK케미컬, SK텔레시스, 유스페이스, 한화컨소시엄, 삼원컨소시엄, 판교벤처밸리 등 11개 업체는 내년까지 완공된다.

“나는 인재를 굉장히 탐내는 사람” “서거적인 대학 만들겠다”

이길여 경원대 총장



특권을 하고 있는 이길여 총장

“나는 인재를 굉장히 탐내는 사람이다.” 지난달 20일 경원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성남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조찬강연회에서 끝없는 인재 육성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경원대학교의 미래비전인 ‘G2N3’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신속 과감한 투자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경원대로 영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G2N3’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과 2개, 국내 최고 학과 3개를 구축해 최단기간에 경원대를 명문대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는 자신이 영입하고 싶은 인재가 시카고의 어딘가에서 몇 시에 나타날지는 정보를 전날 밤 입수하자 다음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 점심때 설득하고 저녁에 한국에 돌아온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재 영입의 노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에 경원대학교의 연구소가 3개나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전교 86개 신청 대학 가운데 교과부가 선정한 18개 대학에 경원대의 뇌과학연구소,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뇌과학연구소에는 노벨상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조장희 박사, 오가와 세이지 박사 등 20여명의 인재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길여 암·당뇨연구원에는 하버드대와

에일대, 시카고대 등 석학 22명을 포함한 100명의 연구진,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후 박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특히 스티븐 후 박사는 오바마 정부 에너지 장관에 발탁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이 총장은 끊임 없는 석학 영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외국인 교수 43명을 선발해 국제 어학원에 배치하기도 했다. “경원대를 졸업하면 영어하는 완벽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교문을 역압한 김원 전 상원대학교 교수를 부총장으로 영입하고 교수와 학생 선발권을 쥐어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명문과 교육은 인재중심의 사업이다”며 “인재나 최고의 인재를 획득해 왔고,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디자인 중국 시장 ‘공략’

한국디자인진흥원, 27만 달러 수출계약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국에서 열린 ‘2009 중국남북국제산업디자인박람회’에 중국디자인시장개척단을 파견, 27만 6천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달 19~21일 중국 남보사에서 열렸으며 가전, 전자정보, 자동차, 생활용품, 가구, 광고, 캐릭터 등을 디자인하는 400여개 우수 디자인 기업이 참여

했다. 국내기업으로는 (주)다담디자인어소사이드 등 13개 디자인전문회사가 전시홍보관에 참가했으며, 이 중 4개 업체가 중국기업과 7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체결 이외에도 디자인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부대행사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이지송 사장 체제 ‘출항’



“토공과 주공이 하나된 LH,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자”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임직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지송 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통합 공사로써 진군을 시작했다.

이날 이지송 사장의 취임사는 “집장사, 땅장사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진 기업이었

다”는 고백으로 시작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라는 대수술을 해야 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자기 반성이었다.

이 사장은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공사가 출발하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집장사, 땅장사의 비난을 받고 부정부패 비리공사라는 평가가 나오면 공사에는 희망

도, 미래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한 뿐이다”는 만도 덧붙였다.

LH공사의 회생을 위해 이 사장은 “토공출신, 주공출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LH공사의 신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조직 안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LH공사 임직원의 역량과 자신의 경험을 합쳐 공기업 선진화의 사명을 남기자는 담부도 잊지 않았다.

임직원들에게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일산, 분당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한 저력을 발휘한 것을 주문했다.

이 사장 역시 2008년 참물직전의 현대건설 경영에 참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경험과 회수불가능 관정을 받은 이란 미수채권을 불공의 외지로 회수한 역사를 회고했다.

이 사장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을 믿는다. 하나가 돼서 출발하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한다. 이제 토공출신, 주공출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인사 단행

이지송 사장체제 출범 맞춰 진용 완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이지송 사장 체제 출범에 맞춰 상임이사 및 부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보강지리본부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인 오우진 이사를 임명하며 이어 녹색도시본부장에는 박관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이사

를 그리고 서민주거본부장

에는 이봉형 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또 국토관리본부장에는 허련 상임이사, 미래전략본부장에는 박원석 이사 등을 임명했다.

이밖에 부근장에는 배관덕 경영지원본부장, 장성주 기술지원본부장, 신경우 특별사업단장 등을 임명했다.

지관군 시의원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 ... 상대원 1·2·3동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를 꿈꾼다

현장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에 주력 전문성 강화 관심 가져야

2006년 5.31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다. 불과 9개월의 임기를 남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인물리뷰를 진행한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성남시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관군 시의원이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 사회복지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3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평가 한다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정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평소 생각했던 복지 분야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80% 정도 성과를 거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을 100% 해결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 사회복지 부문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는 소리를 듣는데

시의회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카운슬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쪽을 넓히는 데 보다 역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영역

은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활동해 왔던 좁은 틀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렇게 보인게 아닌가 생각한다.

—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

개인적인 의지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위원을 맡게 되면서 정당한 지방의회의 완성이 중앙정치의 체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중심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또 노인들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관련되는 단체들에서 격려를 받을 때 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 다 이루지 못했을 때 항상 아쉬움을 갖는다. 솔직히 현재 시의원은 모든 것을 혼자 다해야 한다. 혼자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자료수집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받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한다.

그말대 보좌관이라도 있어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특히 아쉬운 점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해서 받아 들일 때 아쉬움을 느낀다.

솔직히 지방정치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있게 되고 또 상대가 음해하고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내릴 때는 인간으로서 함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인 사회복지사를 벗어날 수 없고 단절 수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는 전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복지타운,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복지도시를 만드는 꿈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고 싶다.



- 주요 프로필
- 현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성남시의회 제5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사회복지시범회 회장
- 대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자문위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

평화적인 리더십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 가져야

전신에 전 미국 노동부 차관 ...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 참석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 일리노이주 노동부 장관과 부시정부 노동부 차관을 지낸 전신애 박사가 지난달 24일 경기도가폭어성연구원이 주최한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 특별 강연을 위해 방한했다.

퇴임을 했지만 아직도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일생각으로 머리가 꼭 차있다는 전신애 박사. 그는 경기도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말문을 열었다.

"DMZ가 있는 경기도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이야기할 의의와 자격이 있으나 이번 국제포럼의 주제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 지역으로서 지구촌의 평화를 완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평화를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겠지요?"

지금 이 시대는 일방적인 리드보다 상호협조와 소통을 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임을 강조한 전신애 박사는 또 하나의 시대적 코드가 '그린'이라고 말했다. "21C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된 상태에서 오바마 정

권이 취임과 동시에 그린 이코노미와 그린 잡을 주창했죠. 그 뒤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그린 이코노미의 대열에 합류했고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그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경기도는 평화와 그린이코노미라는 두 가지 현안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에는 경기도가폭어성연구원이 국제포럼을 통해 제안한 '평화와 그린파트너십'이라는 개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 경제위기와 정서적인 불안에 대한 솔루션을 경기도가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그린파트너십이란 무엇일까?

"지식경제 시대에 정보가 제일 중요하죠. 일방적인(one-way)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가 보여줘야 할 발전적 상상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그린파트너십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그 정신을 국제포럼이

라는 훌륭한 형식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첫걸음이 올바르게 이후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룰지 기대됩니다."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여성이 늘어나고 그들이 경기도에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가동하면 그들이 건강해지고 본분해할 것입니다."미국에서 지난 10년의 공직 생활 속에서 다문화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모여서 나오는 해결책이 더 강력해지는 원리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보다 다양성이 가지는 유연성과 건강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신애 박사는 경기도가 자기 안에 세계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하면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박사가 특별강연을 하게 될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은 오는 23일 수원 화성에서 열리는 전야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포럼을 위해 방한한 전신애 박사

제를 시작으로 24일 'Green', 25일 'Peace'를 주제로 본 행사가 열리며, 가족과 여성 정책에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포럼 참가자들이 DMZ를 방문해 평화를 축원하는 28일 필드트립 행사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수정구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제패'

제2회 전국새마을 합창제 출전 ... 영예의 대상 수상



수정구 여성합창단 공연장면

성남시 수정구여성합창단(단장 김귀옥, 지휘자 노기환)이 지난 28일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새마을 합창제'에 출전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합창제에는 전국 유수의 12개팀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수정구여성합창단은

'가시리', 'Ave Regina Coelestis' 등 2곡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갈채와 함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88년 창단한 수정구여성합창단은 그동안 50여회의 연주회를 통해 성남시의 대표적 문화홍보사업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국제 슈베르트 합창경연대

회' 여성합부부문 그랑프리 수상, 종교음악부문 금메달 수상, '2007년 제12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2006년 제2회 거제 전국합창대회' 대상 수상, '2002 제2회 부산세계합창을 링크' 은메달 수상 등 각종 국내대회를 휩쓸면서 우리나라 정상급 합창단으로서 음악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남시 수정구의 명예홍보사원로서의 명성을 유감없이 떨치고 있다.

한편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새마을회가 주관해 열리는 '전국새마을합창제'는 21세기 선진문명의 근원인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전국 합창음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3년만인 올해 제2회 대회가 열렸다.

성남지역 친노정당

뿌리 내리기 '가시화'



민주당을 탈당한 김시중 시의원

만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통합, 전국정당을 추구하는 국민참여정당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것이 저의 초심을 지켜가는 것이고 저를 사회화로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어만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저의 고민과

김시중 시의원 민주당 탈당

'국민참여정당 만들겠다'

친노정당을 표방하고 창당을 준비중인 국민참여정당에 김시중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합류의사를 밝혀 지역내에서의 친노세력의 결집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시중 시의원은 2일 '아

관단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시중 시의원은 지난 5.30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조선의원이었다.

제17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확정'

학술·한동익·예술·남궁 원·체육·이재열씨 영예의 수상

성남시는 '제17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부문 한동익씨, 예술부문 남궁원씨, 체육부문 이재열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성남시 문화상은 지난달 4일 제17회 성남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학술부문 수상자로는 한동익(63) 성남문화원 이사 및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이 수상했다. 한 소장은 일제가 조선장기 말살책의 일환으로 바꾼 영장산의 이름을 국립지리원에 단독 침탈하여 광주군과 경기도 지명위원회를 통과시켜 퇴환은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



좌측으로부터 남궁 원, 이재열, 한동익씨

념사업회 창립 및 기념탑 건립 공로, 물마마을지 지명조사연구 논문, 성남지역의 지명과 세겨성씨에 대한 논문 5편, 전립산 봉수지 복원을 위한 논문,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2002년 성남문화연구 논문지) 등 성남지역을 주제로 한 6편의 논문 발표, 관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물 이름붙이기 사업 공로 등 여러 가지 학술적 활동을 통해 성남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예술부문 수상자로는 남궁원(63) 경원대 미술디자인대학 회화과 교수 및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이 수상했다. 남궁 교수는 1983년 9월

(사)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를 창립하여 초대부터 3회에 걸쳐 성남미술협회전, 피카소작품전, 경기미협전, 향토작가초대전, 전국 학생미술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기여하였으며, 성남미술상(1990년)을 제정하여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남송국제아트쇼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프랑스 파리 개인전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MAC2000, 미니프, 키아프, 서울국제아트페어, 시드니,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초대되어 활발한 창작 미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남시 미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체육부문 수상자로는 이재열(58) 성남시 축구연합회장이 수상했다. 이 회장은 2000년도부터 축구연합회장을 역

임하면서 제6회(2006년)~제9회(2008년)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비롯해 성남시연합회장이 생활체육축구대회, 성남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성남시협회회장이 생활체육축구대회 개최 등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11회 개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8회 참가 등 초창기 20여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를 1천200여명으로 늘리는 등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성남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들 3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8일 신청사 앞 광장에서 '제36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이 주관하여 상패를 수여 받게 된다.

성남을 빛낸 모범시민 수상자 발표

지역경제 부문 김경수씨 등 6명 선정 발표



방국동

남경실

김경수



국억자

고순옥

김선문

담 대통령상 수상과 대한민국 인쇄산업대상, 제1회 경기경제인 대상 수상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역안정부분 수상자 감신문씨는 교통사고 끊이기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해 온 공을 높이 평가 받았고, 여성복지부문 수상자 국억자씨는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또 사회봉사부문 수상자 방국동씨는 최초로 성남시 새마을지도자 인준을 받고, 거리질서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전개해 온 공을 크게 인정 받았다.

또 효행선행부문 수상자 고순옥씨는 노부모를 31년간 봉양하면서 화목하고 건강한 대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봉사를 위해서도 노인봉사단을 실천해 왔다.

또한 보건환경부문 수상자 남경실씨는 환경공해추방연합회 여성홍보위원으로서 자동차 공회전금지 활동과 환경지킴이 내고장 바로 가기 홍보에 적극 나서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일해 온 6개 부문 모범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영예의 성남시 모범시민상 수상자는 지역경제 부문에 김경수(48) 씨를 비롯해 지역안정부분에 감신문(51)씨, 여성복지부문에 국억자(51)씨, 사회봉사부문에 방국동(74) 씨, 효행선행부문에 고순옥(56) 씨, 보건환경부문에 남경

실(45) 씨 등 6명이다. 시는 올해 모범시민상에는 17명이 후보자로 접수된 가운데 지난 17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공적이 뛰어난 6개 부문별 후보자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수씨는 렉코코리아(주) 대표이사로서 2000년부터 수출

강정일당 상 수상자 안옥자씨 선정

성남문화원, 지역사회 숨은 봉사자로 공로 인정



영예의 제12회 강정일당 상 수상자로 선정된 안옥자 회장

공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향단에 기여한 여성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제12회 수상자로 선정된 안 회장은 1988년 사랑의 교통봉사대(현 사랑의 봉사회 / 제8, 10대 회장) 창립을 주도했으며 지난 20년간 '재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관내 심장병과 백혈병 어린이 104명의 수술을 지원하고, 연중 300~400명의 장애인과 독거노인 나들이를 주최하기도 했다.

특히 안 회장은 중증 장애인 병인 수술 차량 지원, 시각장애 인협회 활채어 도우미 봉사, 독거노인 도사락 배달,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식 지원, 어려운 환우 돕기 '사랑의 동전짓기 모금 운동' 등 열과 성을 다한 공로로 '성남시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보건소장'으로 부러 포함 및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한 KBS 전국은 '지구', '사람의 릴레이', ABN아름방송 '성남전서'로 선정돼 훌륭한 여성으로 소개받아 왔다.

안 회장의 가족으로는 남편과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9일 제2회 '성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제12회 강정일당 상 수상자로 지난 1974년 성남에 정착한 후 20년간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랑의 봉사회 안옥자(80)씨'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정일당(1772~1832)은 한국문화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로, 성남문화원이 창립해 지난 1996년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문화원은 강정일당의 업적을 기리며 여진 인

뮤지컬 '남한산성', 사상 최강 캐스팅 '출항'

최명길 역 영화배우 김신일, 흥타이지 역 뮤지컬 배우 서정석 합류

올 하반기 뮤지컬계 강도를 최대로 대각 뮤지컬 '남한산성'이 오는 10월 캐스팅이 확정됐다.

경남문화재단이 공개한 주·조연 외에 최명길 역과 흥타이지 역에 각각 영화배우 최상원과 뮤지컬 배우 서정석이 합류, 모든 캐스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문화재단이 이르면 사흘은 "이유배금의 표상인 최명길 역에는 무도리우먼에도 강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연기와 배우를, 장나라의 실용적인 흥타이지 역에는 대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10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남한산성'은 최상원 뮤지컬 배우 역이 확정되고, 영화배우, 아이돌 스타 등 신인 최명길 출연진으로 선보이게 된다.

무엇 주연으로 오갈까 역에는 현재 인기 일일 출연 주연연하의 '할 일'을 아 '원'에 출연중인 이말오가 뮤지컬은 물론 안과 드라



마, 영화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해라 배우 김신일이 다른 캐스팅 되었다.

오달재의 대척점에 서게 되는 장영수 역에는 국내 최고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예성과 여배 뮤지컬 직업을 통해 역임자인 가창력을 인정받은 뮤지컬 배우 이말오가 출연한다. 여주인공 대역과 남이 역에는 이말오와 임정화가 출연하게 된다.

또 역역의 오갈을 갈수있 현재 최강의 합류 연 최명길 역에는 영화 공전의 적

중에서 선 굵은 연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배우 김신일이, 장나라의 흥겨운 흥타이지 역은 2008 한국뮤지컬 대상 남우조연상, 2008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최고 인기 뮤지컬 배우 서정석이 맡는다.

경남문화재단은 뮤지컬 '남한산성'은 예능, 뮤지컬에서도 보기 힘든 최강의 캐스팅인 만큼 관객들에게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한산성 인터넷에 새롭게 '부활'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흥타이지 새롭게 기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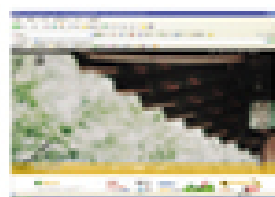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남한산성에 문화관광과 자연산채,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축제·교과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남한산성 대표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고 밝혔다.

이전에 새롭게 선보인 남한산성 홈페이지는 정보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흥타이지'의 직할 판매를 할 수 있는 참여 공간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남한산성의 상징으로 개발 중인 이말오, 흥타이지캐릭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및 댓글 확인주변 발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자기고차 높은 시민들을 위한 남한산성지킴이 커뮤니티는 문화는 관심분야의 지킴이가 되어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직할 운영하거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문화재단지킴이, 반달곰이지킴이 등이 커뮤니티에 참여 있다.

특히, 남한산성 홈페이지는



오감을 가난해 오는 10월까지 카드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소중하게 보존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부활'을 기대한다.

이제에도 남한산성이 관련된 고사본, 고문서, 기록물, 유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홈페이지에서 시간적으로도 방문을 위해 필요한 소장이 상설을 얻을 수 있는 '남한산성 유물 사경본'이 상설로 운영된다.

경로안내를 통해 다양한 유물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소장품이 없는 유물들은 자각의 재능 한 활동단위를 이후 소장자가 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남한산성 홈페이지(www.godan.co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산성, 역사아카데미로 '부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남한산성 역사아카데미 개설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학당기행연구소(소장 이말오)의 관계 남한산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역사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지난날 17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남한산성 역사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기로 한 이래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일의 지난날 10월 24일까지 17일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세종학당에 따른 것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인물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아카데미 일정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남한산성 박물관 및 경남문화재단에서 열리는 특강과 방문을 포함해 1시간으로 운영된다.

1기 아카데미에서는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인물, 산채, 조상문화유산 등 남한산성 인물을 통해 국내 최고의 문화유산이 되어 있다. 일부 현장답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 대형 축제 '초상집'

남한산성문화재단 동 전역 취소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오는 10월 12일 예정이던 2009 경기 문화축제가(경남문화재단) 18일 2009 부천문화축제로(10월 18~20일) 대체로 축제에 참가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경기 30대 100여건의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연기(11건)·취소(13건)·취소(13건)·취소(13건) 등 11건의 행사가 연기되고 13건의 행사가

가 단종 플루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사 취소 확정된 대형행사는 2009 부천문화축제로(10월 18~20일), 제14회 남한산성 문화제(10월 21~23), 제13회 이천시 행사(10월 24~25)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11건)·취소(13건)·취소(13건) 등 11건의 행사가 연기되고 13건의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수정구여성합창단 일일 문화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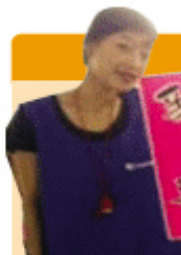
남한산성 수정구여성합창단 (대중 참여형, 지역화 노리기)은 일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일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정구여성합창단은 지역 내 거주민으로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부부의 결혼식 Wedding 축하의 Wedding 연주도 제공하고 있다.

또 결혼식, 대학의 복귀공연의 여교단을 찾아가 지역봉사 공연을 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 감사를 주는 일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정구여성합창단은 올해 제2회 전국 대회를 합창제 '대상' 수상, '2008년 국제수베르르 합창경연대회' 여성합창부분 최고인상 수상, 최고 음악부문의 국제상 수상, '2008년 제1회 대한연상 국제합창경연대회' 대륙연상 수상 등 세계대회는 물론 각종 국내대회를 휩쓸면서 무라비니 합창단 합창대사로 유예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nterview



장순화 성남여성의전화 회장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독특한 형태의 지역사랑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권이 나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운동의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본보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특집 '희망 이야기'를 연재한다.



“성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 꿈꾼다”

창립 15돌 '지역과 호흡하는 단체 만들터'

— 여성의 전화 주요 성과를 뽐낸다

여성의 전화 15주년 행사를 오는 9일 갖는다. 10년이면 감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하고도 5년의 세월이 지났다. 아시다시피 여성인권단체고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죽 지내왔고 1:1 지원을 넘어서 밥을 만들고 또 개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교육, 인식전환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 점차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여성운동하고 또 여성들이 조금은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경험, 의회에 들어가자고 의정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말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참 열심히 활동하면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점이 이 정도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연령은 낮아지고 있고 출생률도 보드 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좌절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예 이런 활동조차 안했다고 한다면 지금 좌절조차 경험 해볼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에는 은행동 주민들, 장자동 주민들과 호흡에 대

— 출범 이후 성폭력관련 사회의 인식을 평가한다면

이미 국가도 성폭력은 범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장 폭력은 집안문제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 성남 여성의 전화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전국 지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문화축제라는 것을 기획했고 그런 것들을 전부 여러 차례 실시 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리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나가서 여러 가지들을 전시를 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 가지고 5차 정도의 성문화 축제를 진행한 것이 성과다.

— 여성의 전화가 꿈꾸는 비전이 있다면

여성의 전화는 목표가 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여성의 전화인데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체로서 지역여성들과 밀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15주년을 맞으면서 더욱 탄탄한 밑그림을 그어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려고 새로운 꿈을 다시 꾸어 보려한다.



수도권 최고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생태의 보고인 남한산성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뛰어난 문화적 콘텐츠와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들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남한산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현장에서 맘 졸이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의 활발한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을 전두 지휘하고 있는 이광희 단장을 통해 남한산성의 희망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광희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남한산성은 문화·생태계의 보고 ... 세계문화유산 등재

—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출범이 갖는 의미는

남한산성 하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한산성은 단편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 인조 때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한 패전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은 숲과 계곡이 좋은데 닭도리탕이나 오리백숙을 먹는 유원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기본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단이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사업단은 남한산성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한산성을 정갈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적으로 세계에 알리 수도권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3가지다. 첫째는 올바른 역

해 있다. 두 번째는 남한산성을 수도권의 대표적인 주말 여가선용지로 조성해 문화명소, 콘텐츠가 풍부한 문화명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원안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라던가 동식물, 야생화 등이 자연상태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사업이 있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이 앞으로 후보목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는 것은 곧 남한산성의 어떤 주민들이 세계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세계적인 장소로 사랑받는 주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 더 개방된 자세와 그리고 외지인이나 다른 민간인 또는 이런 분들과 소위 친밀하게 문화유산 특성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아카데미도 개설했다.

사업단에서는 축제나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한 계획입니다.

— 행궁복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문화재청 등이 최근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극적 활용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



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봄에 행궁이 완료가 되면 남한행궁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20여개 달하는 행궁 중에서 유일하게 사적과 종묘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할 만한 행궁이다.

행궁에서 인조대왕을 비롯해서 행궁을 이용했던 영조나 정조대왕의 행적, 행궁을 방문했던 왕들의 연설내용을 재현해서 행궁에서 그것을 공연한다거나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목조로 된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을 좀 더 살감게 느끼게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와 역사가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그래서 산교육이 되

는 장소로 활용한 계획이다.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남한산성에 관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

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보다 올바른 남한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네티즌이나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느끼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고 남한산성을 더 사랑하고 방문해주시게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홈페이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만들어지리라 고 봅니다



적으로 인조시대의 병자호란의 패전지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숙종이나 영조, 정조 대왕 그리고 하다 못해 고종까지 수많은 왕들이 즐겨 방문하면서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국난극복과 복원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던 호국의 역사적 성지다.

이러한 호국의 성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가지고 집행 할 수 있는 조직이

사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남한산성 안에 백제,신라시대의 역사와 유적을 보수,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 보수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수, 복원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남한산성 안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고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 한말, 그리고 일제시대의 수많은 역사 시기에 중첩된 유적들이 산재



성남시청 청사 이전 '초읽기'

오는 23일부터 21일간 이전 ... 야탑동 청사 시대 임박



성남시청사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그동안 청소공간의 부족으로 5개소에 분산돼 있던 행정업무를 신청사 건립과 함께 한 자리에 모아 고공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중앙구 여수동에 건립 중인 '성남시청사 및 의회'가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1일간 부서별로 신청사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로 이전하는 부서는 성남시 본청 내 26개 부서를 비롯해 시민회관 내 문화예술과 ▲대생빌딩에 입주해 있는 녹지과, 체육청소년과, 시설공사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교통기획과,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공민과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종합운동장 내 민원연선실, 단편관리과 ▲중앙구 삼대원

동 소재 환경에너지시설 내 청소행정과 ▲분당구 운중동 주민센터 내 택지개발과 등 총 40개 부서와 성남시의회가 옮겨가게 된다.

이전 일정은 오는 23일 본청 내 행정자료실부터 신청사로 옮기기 시작해 오는 11월 12일까지 하루 4~5개 부서씩 순차적으로 이전·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0개 부서의 이전 기간동안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책임 이사제를 실시하며, 평일은 물론 주말작업과 야간작업도 실시해 이사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서별 이사 당일에는 민원처리전담요원 배치,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신·현청사간 순환차량 수시 운행 등을 실시해 청사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이전 일정에 따라 현 청사의 활용방안인 수정구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지역봉사단체 입주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지역 공동화 방지와 주변의 상권보존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시청사 공청장은 현재 97%를 보이고 있는 신청사는 지난 2007년 11월 공사를 착공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성남시청사 및 의회' 개청식은 오는 11월중 열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수동 신청사는 현재 북도바다 카펫시공, 도장 작업 등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청사는 지난 1989년도에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져 그동안 턱없이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15개과 320여명의 공무원이 청사 밖 5개소에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준공

지하3층~지상4층규모 ... 8개 노선 운영

광주시민의 오래 숙원사였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완료돼 지난달 1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통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억동시장과 정승달 광주터미널(주) 대표를 비롯, 정진실 국회의원, 이상택 시의회의장, 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된 시외버스터미널은 연면적 52,825㎡, 지하3층~지상4층의 규모로 지난 2007년 9월 착공해 2년만에 완공됐으며, 다양한 시설을 갖춰 문화, 쇼핑, 여



행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운영노선은 광주~김포공항~인천공항, 하남~광주~광주광역시, 하남~광주~대전, 하남~광주~청주, 하남~광주~원주~강릉, 광주~이천~논산, 이천~광주~춘천, 고양~하남~광주~경주~포항 등 8개 노선이 운행하게 된다.

분산돼 대민업무를 봐 왔다"면서 "새로 옮기는 여수동 청사에서는 분산된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인해 가장 큰 불편과 혼선을 겪어왔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민행정서비스에 나서기 위해 '답장없는 성남시청'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가 새롭게 동지를 틀게 될 중앙구 여수동 소재 '성남시청사 및 의회'는 오는 2012년말 완공예정인 인근의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광장과 연결돼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될 전망이다

다. 또한 신청사 내 조성되는 음악분수와 벽천효수가 멋진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산책로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성남시는 신청사 야외 공간을 각종 콘서트, 영화상영, 예식장, 스케이트장 등의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고, 청사 내 '성남의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종합홍보관과 6천5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열린 도서관', 600석 규모의 대강당, 다양한 용도의 회의실, 전시공간 등을 시민들에게 연중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중부관광여행사

☎ 031-781-3500

www.jungbutour.co.kr
www.dailytourbus.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1 터미널프라자 503호

국제항공운송협회 BSP 성남지점 | 자체 세계항공 발권 및 좌석 확보 "경기 데일리 투어" | **선정업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

01 국내여행

테마여행·골프투어·콘도 & 호텔·기업체연수·수학여행·체험여행·섬여행(제주도, 울릉도, 울도, 백령도 당일출발)·산악회

02 국내버스

최신형차량 62대
회사직영 보유
경기최대우승업체

03 국내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예약 및 판매 대리점

04 해외여행

자유배낭여행·골프투어·러니온·패키지·호도여행·크루즈·여권비자·호텔·할인항공권·에어텔(항공+호텔)

■ 국내상품(예입금)

진각화(경기) 1000원, 경기도 1500원 - 선(가/미/호)

울릉도 2박3일 260,000-

홍도·속산도 2박3일 230,000-

백령도 1박2일 160,000-

제주도 2박3일 280,000-

당일출발 160,000-

■ 해외상품

일본

동경/하코네 3일 699,000-

오사카/사카이/교토 4일 579,000-

코스모스전/하우스텐 보스 4일 749,000-

중국

북경/장가계/전가계 5일 599,000-

계림/장악 5일 299,000-

성도/구례구 5일 749,000-

서양/청아동/야탑구 5일 299,000-

동남아

방콕/하타(태국) 5일 299,000-

방콕/하타(고공) 5일 799,000-

베트남/참보디아 5일 1,099,000-

홍콩/타이완 4일 649,000-

세계여행

시드니/멜보른 6일 1,599,000-

캐언즈 5일 1,599,000-

랍 4일 1,199,000-



경쟁기 극복!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만들겠습니다

신도시건설, 뉴타운건설,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통해
'가장 살기 좋은 경기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 주요추진사업 ■

광고명품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경기뉴타운

첨단 및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조성

연인산 도립공원조성사업 등

광고명품신도시 파워센터 에코힐 조감도

세계적인 건축가인 네덜란드의 위니 마스(Winy Mass)가
실계한 작품으로 수원화성 봉수대를 형상화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지자체 최초 기업, 대학, 사회단체와 협약... 체계적 육성 추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는 체계적 사회적 기업 육성 시스템을 출범시킨다.

도는 29일 오후 3시 중기센터에서 삼성전자, SK텔레콤, 수원대, 경기미래복지재단 등 83개 후원 기관과 (주)김민 등 105개 사회적기업 참여한 가운데 도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문수 도지사, 정중수 노동부차관, 전진규 도의회경부위원장, 인본사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조용이 회장, (사)세스넷 유승삼 이사장, 기업, 대학(산학협력단장), 각종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석한다.

'사회협력 협약 및 선언'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다일화와 질적 수준을 높여 취약계층의 고용여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사회공동체적 참여와 보편적인 사회협력모델을 발굴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단체, 기업, 대학(산학협력단) 및 노동, 회계, 변호사



들 전문가그룹이 △인사, 노동, 회계, 기술, 경영노하우 등 전문성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사무용품 등 각종 현물 기부 △사회적기업 설립 자금 지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후원금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펼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많은 기업과 단체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나서는 공동체적인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기관 등 각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생태환경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멘토링(후원)과 프로보노(기부)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08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에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으로 57개 기업 8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400백만원)하였으며 △재품구매 지원(1,088백만원), 용역서비스 지원(8,429백만원) 실적을 올리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내년 예산 2조9천억원 확정

내년도 경기도의 SOC사업 예산은 새롭게 예산 항목에 편성된 4대강 사업 금액만큼 늘어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는 국비 지원되는 내년 경기도 SOC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7% 증가한 2조9천734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기도 SOC사업 예산 가운데 하천 항목의 증가 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하천 관련 예산액은 모두 6천600억원으로 전년대비 562.7% 증가한 금액이다. 하천 항목의 대폭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내년부터 새로 추가된 4대강 사업 예산에 6천억원 배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SOC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6천734억원 증가한 이면에는 이처럼 새롭게 포함된 4대강 사업 예산 6천억원 만큼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반면 녹색교통과 화물의 원활한 대량수송을 위해 경기도는 철도 항목에 1조8천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대폭 삭감된 1조6천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관련 항목도 경기도 신청액 1조9천억원에 크게 못미친 7천억원 정도에 머물렀다.

“기업활동 적극 지원하겠다”

정몽준 대표 성남산업단지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성남을 방문해 경제인들과 대화를 갖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 대표는 29일 오후 성남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남산업단지를 방문

한 정 대표는 이범택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입주업체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해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 정 대표는 중소기업협회 (주)ED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방문목에 "ED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서명했다. 이어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 대표최고위원은 "저는 평소 우리 기업인들이 애국자이고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기업인들"이라며 큰 보배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세계 1위를 목표로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더의 박 대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을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도 이에 대해 답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사했다. 한편 정 대표최고위원의 방문에는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신영수 대외협력위원장, 김기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정양식 대표비서실장, 조해진 대변인, 이대영 성남시장, 유연재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행정구역 통합, 7조원대 행정비용 손실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분권포럼...정부 주도 통합 강력 '반발'

"행정구역 통합으로 4조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 대신 7조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

지난달 23일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지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밝힌 2조886억원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통합 이전의 현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통합의 편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거 도농 통합시 사례를 볼 때 통합 이후 행정기구가 증가하는 등 행정경비 절감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해 최근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이 모두 합쳐질 경우 향후 10년간 지방 교부세 인센티브 2조886억원 외에 행정비용 절감과 각종 공공요금 인하 효과 1조8816억원 등 모두 3조9182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10개 시군 통합시 소요 또는 발생되는 비용은 최소 6조8637억원으로 추정되며 통합결정을 둘러싼 추정되는 비용, 조세부담을 증가, 신항사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변동 등 추정 불가한 항목들까지 합한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행안부의 50억원의 특별교부세,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5년 보장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통합논의가 발생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한 연차별 및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자치재정권 등 간접적 인센티브를, 통합이 원활치 못한 지자체에는 직접적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시군통합은 중앙 정치권 보다는 지역주민의 담론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무리한 시군통합 보다는 '중앙-광역-기초'간 적절한 권한 배분과 기능 조정으로 지방분권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글로벌 IPTV 확산센터' 개소

편집실 등 첨단장비 구축 ... 1천6백억원 생산유발 효과 발생

전국 최초로 '글로벌 IPTV 확산센터'를 설립한 성남시가 지난달 30일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글로벌 IPTV 확산센터'는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 킨스타워 2층 약 140평 규모에 스튜디오, 4개 편집실, 회의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기획·운영·촬영·편집 등 6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확산센터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을 실시간 또는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쌍방향 방송 서비스 센터다.

성남시는 IPTV 확산센터에서 u-City 사업과 연계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건, 의료, 행정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며, 기업의 IPTV 콘텐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 예정이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콘텐츠를 개발·제공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은 리모컨과 브라운관만 있으면 학원에 가지 않아도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를 비롯한 KT, SK브로드밴드, LG이콤 등 IPTV 3사와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PTV 확산센터 운영은 산하재단인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KODIMA, IPTV 3사가 공동협력 운영하며 ▲QookTV,

broadtv, myLGtv 등 IPTV 3사 서비스 제공 ▲영세 IPTV 제작사를 대상으로한 제작지원 ▲건강·의료·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콘텐츠 창작, 기획, 방송통신 신기술 등 교육지원과 국내의 관로 개척을 위한 사업화 지원 ▲콘텐츠·뉴미

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 ▲대학 창업 컨설팅 사업 ▲관내 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IPTV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특히 IPTV 확산센터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IPTV 3사의 폐쇄사용자그룹(CUG) 서비스를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 및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송출함으로써 IPTV 콘텐츠 제작에서 송출까지 윈윈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IPTV 확산센터는 앞으로 보건·의료·학습 등의 공공부문 콘텐츠를 제작·개발·운영해 나가 성남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사회공익 또한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 설립운영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1,600억원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48억원, 고용창출효과를 3천명으로 내다봤다.

성남시 공작협, 베스트 시의원 3명 발표

베스트 시의원 김대진 의장 - 이영희 의원 - 홍석환 의원
베스트 사무관 문기래 - 신중서 - 정종완 과장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김대진 의장, 이영희 의원, 홍석환 의원

성남시 공무원직 장협의회(회장 김학봉)가 22일 출범후 최초로 베스트 성남시의회 의원 3명과 베스트 사무관 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성남시 공작협은 이날 공작

협 홈페이지를 통해 베스트 시의원으로 김대진 의장을 비롯해 이영희 경제환경위원장, 홍석환 의원 등 3명이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베스트 사무관에는 문기래 총무과장을 비롯해 신중서 감사담당관, 정종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선정됐다.

한편 성남시 공작협은 당초 발표기로 했던 위스트 시의원 3명과 위스트 사무관 3명을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했다고 밝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 공작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5일까지 5급 이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자연생태의 보고로 탈바꿈하는 '탄천'

성남시민들의 자연휴식 공간인 성남시 탄천의 자연환경이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달 4일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앞 탄천 좌안 저수효안벽에서 폭제비 새끼를 발견, 그 모습을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다.

폭제비는 식육목(食肉目) 폭제비과의 포유류로, 평지에서 낮은 산에 걸쳐 물가에 서식하고 해답을 잘 치며, 대부분은 지상에서 단독으로 생활한다. 또한 뱀·개구리·조류·목공개 외에도 귀뚜라미·매뚜기·여치 등의 곤충이나 쥐·토끼 등을 먹고 살아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관

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물이다. 이러한 폭제비 출몰에 대해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0여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적 하상정비를 실시해온 성과"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동·식물이 번식하기 좋은 탄천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해 안에 수내동과 내년도에 수진동 등 2곳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성남교육청 생색내기 '구설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속된 강정' ...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 '미비'

경기도청 교육청

민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출범이후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경기도의회와 경기교육청 대립이 잦아지고 있다. 굳이 분석하자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과 경기도의회 의원 대부분이 속한 정당이 한나라당인 것이 핵심이다.

다수를 잠악하고 있으니, 무료급식문제부터, 교육청 신설 등 굵직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교육청 갈등'이 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맞서 경기교육청이 200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교육이 행정에 속하는 것은 막지는 취지였다. 이런 와중에 경기교육청이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었다. 교육 예산의 투명성이었다.

과거 그들만이 알 수 있었던 교육 예산을 주민참여제도 등 도입해 성남의 경우 일반 시민 80여 명의 신청을 받아 2010년 예산을 미리 설명하고, 혹 잘못된 예산 책정이나 배정을 미리 알려 바로 잡자라

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한 교육공무원의 자세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성남교육청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기 인사말만 하고, 행사를 핑계로 일찌감치 자리를 빠져 나갔다. 그렇다면 교육청 서열순서대로 관리국장이라도 나와 진행해야 해야 하지만, 정작 마이크를 잡은 것은 관리과장이었다. 몇 단계 건너 뛴 거다.

내용도 탐탁치 않았다.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의 예산만 나왔었다. 2010년 끝 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래놓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자문위원회 입기는 9월 만가 지라고 못 박았다.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한 해 지역교육청 예산 물자라 참여했겠는가. 교육청도 평가 보여 주려는가 해서 참가했는데, 김상곤 교육감 다투더라도 교육감 입기가 내년 6월만까지도 있고 있는 교육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아래로 먹이지 않는가 보다. 이러니 교육감이 얼마나 답답할까. 안봐도 알겠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음악행사가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협회에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순미 지부장의 첫 마디다. 모든 문화예술이 그렇지만 특히 음악은 대중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친근한 문화라고 강조한다.
 성남의 향토음악인으로 늘 음악과 함께 생활하며 성남음악문화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음악협회성남지부 김순미 지부장의 음악세계를 들여다 본다.



김순미 한국음악협회성남지부장

음악은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안식처’

관행적 예술행사 탈피 ...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개발



— 음악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음악협회는 성남시 문화예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곧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중요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악은 다른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시의 지원에 의지해 활동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음악협회 나름의 자생력을 길러 활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
 음악에는 모두 9개의 단체가 있는데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각 단체별로 연주회를 가졌다. 반응도 좋아 앞으로는 1년에 3번 정도는 현장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한다.

— 음악의 주요활동은
 매년전국작품요제와 박태현음악제, 학생음악 경연대회 등이 있고 성남예술제에도 음악이 참가하고 있다. 학생음악예술제는 그동안 성남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성남사에 거주만 한다면 참가가 가능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다.

—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가 가진 매력이 있다면
 피아노는 작은 오케스트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음악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성악의 경우 목소리를 타고 났다면 고등학교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수 있지만 피아노를 포함한 모든 악기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으며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요즘 휴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음악 뿐 아니라 음악과 미술, 국악 등 모든 분야의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열어가고 싶다. 물론 현대인들의 구미에도 맞고 음악의 전통성도 잃지 않은 채 말이다.



안보의식
단단히 채우세요!

빈틈없는 안보의식이 우리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간첩·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 신고는 **111**

신고
상담

■ 국가정보원 : 111
 ■ 경 찰 : 112
 ■ 국군기무부대 : 1337

상금

■ 간첩선 : 최고 1억 5천만원
 ■ 간 첩 : 최고 1억원

분당 등 5개 신도시 리모델링 '시급'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기자회견 ...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촉구'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대표들이 아파트 노후화 방지를 위해 정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 대표들은 지난 8월 31일 오후 분당구 정자동 잠미마을 아파트 입주주주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건축 규

제완화 정책에 대해 감도 높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화 극복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계속 무시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만 몰인한다면 이는 200만 신도시 주민들과 서민들을 죽이기를 작정한 정부의 신도시 차별이며 신

도시 학살정부"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5개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는 "비상식적인 제도로 감요하는 동굴형 평면이 있는 한 리모델링은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리모델링이 필히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는 하루 빨리 리모델링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혼선을 빚는 현재의 불합리에서 탈피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시 일괄적인 전용면적 30% 증축 제도를 개선하고 세대수 증가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학의 향취에 취한다"

성남문화재단, 커뮤니티 인문학 강좌 ... 오는 12월 10일까지



성남문화재단은 인문학과 예술을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009 커뮤니티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예술이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공동체의 삶 속에 함께 녹아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번 강좌는 오는 1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13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된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삶을 바꾸는 예술 : 공동체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예술로 소통하고 치유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인문학의 관점에서 여러 형식과 장르의 예술을 들여다보며 소통의 기호로 예술을 되새겨 본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일

상 속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취지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여하여 매 시간 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7일 김성도 고려대 응용문화연구소장의 '도시 공간의 예술화: 도시미학의 인문적 성찰' 강의를 시작으로 시인 김용택, 문화평론가 최영호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도현 교수 등 11명의 강사가 매 회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이어간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커뮤니티 인문학 과정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의 예술, 또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예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환경지킴이 '토마토왕국' 홍보활동펼쳐

광주지역 공학생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광주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김주안 군(고지암동 3) 등 10명으로 지난 6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제4기 생물자원보전 청소년 리더 선발' 대회에 '토마토왕국'이란 팀명으로 참가해 선 났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지난 6주간 삼하수도시설, 재활용센터,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과 환경단체를 견학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곳곳에 지포 종류에 대한 홍보전단지 배 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 (<http://10tomatoes.com>)를 개설해 활동사항과 각종 환경자료를 게시하고, 인터넷방송 '아프리카'에 출연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리더 김주안 학생은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대표적인 토마토도 지표종으로 점점지역인 광주에서 토마토가 많이 난다는 것에 착안해 팀명을 '토마토왕국'이라고 정했다"며 "북한을 침묵한 홍보로 사람들의 관심을 높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애 향심을 일깨움으로써 청정광주를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성로

"대통합의 길에 동참하자"

성남시와 하남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선언을 발표하자 시민사회와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나서 역사적인 통합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모동희/편집장

이처럼 지역사회 발전의 최대 현안인 통합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과 사상은 철저히 무시됐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물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의 오랜 숙원인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대외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가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사고의 발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통합을 주도한 이대영 성남시장과 김환식 하남시장이 시민사회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성남시와 하남시는 시장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대영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시민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대영 시장과 김환식 시장이 정치적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이대영 시장의 통합선언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겠는가.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들도 통합의 대외에는 찬성하고 있다.

결과의 민주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대영 시장은 이제 100만 성남시민의 오랜 영원인 행정구역 개편을 오기행정으로 더이상 맡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 정당 등도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행동인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대통합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가 통합의 주제로 적극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가장 '통합시추진 민간합동기구'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럴때만이 통합이 갖는 상징성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통합의 한 축인 광주시가 이번 선언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도 대통합에 대해서는 총론에서 찬성하고 행정개편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꿈은 성남시와 하남시로 넘어왔다. 이를 해결하는 해법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광주시와 함께 상생의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이루는 '대통합의 모델'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럴때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대통합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뉴스데이

newsday.or.kr

발행·편집인: 김광만

편집장: 모동희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경기 D00907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명동 347 명성빌딩5층

구독·광고 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3D/C/BI
카드록/팜플렛/기타 홍보물

제40호 | 발행일 : 2009. 10. 8.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이광희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INDEX

0 뮤지컬 '남한산성', 사상 최강 캐스팅 '출항'	6면
0 성남 · 광주 · 하남시 통합 '새국면'	7면
0 성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 꿈꾼다	8면
0 성남시청 청사 이전 '초읽기'	10면
0 경기도,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12면
0 전국 최초 '글로벌 IPTV 확산센터' 개소	13면

단기 4342년

제15회 단군제 · 도당굿 문화축제



단기 4335년
제 8 회 개천절 단군제 및 도당굿
 일시 : 2002년 10월 3일(목) 오전 12시 장소 : 남한산성배드민턴장, 놀이마당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단군성조연합회 후원 : 성남시, 성남지역회, 사랑의은봉사단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 오전 10시
- 장 소 : 남한산성 유원지 놀이마당(은행동)
- 주 최 : 성남문화원/단군성조연합회
- 후 원 : 성남시

